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제127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지난 5월 30일(월)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된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다례제 중 화엄경 봉정식에서 추모문을 낭독하시는 헤거 큰스님 ▶ 관련기사 4면

2017학년도 수능 100일기도 입재

금강선원에서는 2017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는 8월 9일(화) 오전 9시 20분 기도법당에서 수능 100일기도를 입재합니다.

11월 16일(수) 회향하는 날까지 100일간 하루 2번(오전 5시, 9시

20분) 기도가 진행됩니다. 수능 100일기도는 수험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일까지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헤거 큰스님, 청비스님, 보유스님

과 함께 하는 수능100일 기도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이 루고자 하는 원이 있는 모든 분들도 이번 기도에 동참하여 정진시길 바랍니다. 큰 수행이 될 100일 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프로그램 개강

7월 30일(토)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11기 청소년 기초 명상 프로그램이 개강됩니다. 연 1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집중력과 자기조절력, 지구력을 키우는 명상 집중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 올바른

인격과 도덕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기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강선원에서 개발한 금강전두엽 훈련을 비롯하여 집중명상, 주제명상, 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헤거 큰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 ▶ 일 정 : 7월 30일(토) ~ 9월 25일(일)
-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 ▶ 참여대상 :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 ▶ 참 가 비 : 1인당 3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jc445@hanmail.net)
- ▶ 문 의 : 금강선원 02-445-8484, 탄허기념박물관 02-445-8486

제6회 금강경강송대회 기금 마련 특별기획전

금강선원에서는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금강경강송대회를 널리 홍보하고 금강경으로 하나 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3일(수)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화가 은도에 두츠(Ndoye Douts)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은도에 두츠는 분할된 면에 동심, 서정성, 정체성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과 '100=1, 1=100' '100-1=0'의 주제를 통해 전부가 하나이고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고 없어서는 안 될 우주의 일부임을 표현하며, 세상 모두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그 의미를 상실함을 표현하는 등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고 있는 은도에 두츠(Ndoye Douts). 그와의 첫 만남이 7월 13일(수)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시작됩니다.

금강경강송대회의 시작점이 되는 이번 특별기획전 <두츠, 여름날의 同化>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Opening : 7월 13일(수) 오후 4:00

▶ 작가와의 만남 : 7월 16일(토) 오후 4:00



2016년 백중 7일 지장기도 봉행

금강선원에서는 우란분절(음. 7월 15일)을 맞이하여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백중 7일 지장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진정한 효심과 공덕의 시간이 될 이번 지장기도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바랍니다.

- ▶ 입 재 : 2016년 8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 ▶ 회 향 :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 동참금 : 10만원(설판 100만원 / 신한은행 100-025-513955)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용문석굴에서 함께 한 금강선원 불자들

해거 큰스님과 80여명의 불자들은 지난 6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선종 발원지인 송산 소림사에서 부터 용문석굴,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 등

유명 고찰들을 직접 보면서, 가는 곳 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라 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요경전법회 『능엄경요품』 강의 개강



인경스님께서 강의하시는 금요경전법회 전경

지난 6월 10일(금) 금요경전법회에서는 인경스님의 『능엄경요품』이 개강되었습니다. '무한히 큰 절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닦는 보살들의 완전무결하고 견고한 육도만행 수행법을 설한 경'이란 뜻의 『능엄경』의

원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입니다. 대중적이고 근본 경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금요경전법회에서는 인경스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능엄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문전문반 『근사록』 특강 개강



한문전문반 강의 전경

다양한 한문 고전을 박완식 교수님의 강의로 보다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문전문반에서는 지난 6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대법당에서 『근사록』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사록』은 송나

라 때 주자학을 완성한 주자와 여조겸이 주돈이, 정이, 정호, 장재의 글을 주제별로 분류 편찬한 선집(選集)으로서 시대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8기 기초참선반을 수료하며



제28기 기초참선반 수료생 단체사진

지난 6월 20일(월) 오후 2시 30분 대법당에서 제28기 기초참선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과 상당인증서 수여에 이어 진행된 수료법문에서 해거 큰스님께서는 일념이 되는 훈련을 반복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심검당에서 심화과정의 진행되며, 매일 1회 담선법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 교사직무 연수과정을 마치고



제1기 서울교육연수원 교원직무 연수과정중에서

탄허기념박물관이 서울교육연수원 특수분야 교원직무 연수기관으로 인증되어, 지난 6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1기 연수과정 '수업이 즐거워지는 집중명상과 전두엽 훈련 1'이 진행되었습니다.

해거 큰스님의 명상 강의 및 집중명상, 행복명상, 이완요법, 전두엽훈련 등 다양한 명상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참가한 교사

들 대부분이 높은 만족감과 더불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에 동감하고 5일간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인 것을 아쉬워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2기 연수과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5일(월)~29일(금)까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 과정 개강



명상프로그램 중 참선수업 전경

금강선원의 참선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과 실참을 중심으로 참된 명상지도자를 길러내는 금강명상지도자 과정이 지난 6월 4일(토) 오후 1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개강되었습니다.

개강식은 총 26명의 연수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제식과 인경스님의 법문에 이어 지도자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명상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강명상지도자과정은 2급(8주), 1급(8주), 전문가 과정(8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거 큰스님의 지도로 경전(좌선의,심우송,능엄경)공부 및 좌선 실참, 전두엽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24주간 진행되는 명상지도자 교육과정입니다.

박물관 단신

◆ 2016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5월 3일 수서중학교, 4일 숙명여고, 19일 평촌초등학교, 5월24일 세명초등학교, 5월26일 면목초등학교, 5월27일 면목초등학교, 5월31일 포이초등학교 등 7개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미술 심리 체험활동을 추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활동으로 라포 형성활동, 희망 메세지 부채 만들기, 희망 팔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 진행되었습니다.

◆ 의정부 영석고등학교 학생들 박물관 견학

동국대학교 부속 의정부 영석고등학교 불자반 학생 50여명이 선생님과 함께 지난 6월 17일(금) 탄허기념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 설명, 금강경 강송대회 관련 영상물 감상과 더불어 박물관 관장이신 해거 큰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11월 12일(토) 개최하는 금강경강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거 큰스님과 함께 촬영 한 영석고등학교 학생들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대승기신론』 강설 ①



오늘부터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불교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신론을 공부하면 불교교리가 반듯하게 정리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름 그대로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크게 일으키기 위한 논서’입니다. 이 책은 인도의 마명보살이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명보살은 “무연대비無緣大悲로 저 무명의 헛된 바람이 마음바다를 요동시켜 떠다니기 쉬움을 불쌍히 여기고 이 본각의 참된 성품이 긴 꿈에 잠들어 깨어나기 어려움을 가엾게 여겨서, 이에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 이 기신론을 짓고 여래의 깊은 뜻이 담긴 경의 오묘한 뜻을 찬술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한 두루마리의 책을 잡시 열어서 삼장(경장 율장 논장)의 뜻을 두루 탐구하게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경계를 길이 쉬어서 드디어 일심一心의 근원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려는 것. 所以 馬鳴菩薩 無煙大悲 傷彼無明妄風 動心海而易漂 愍此本覺眞性 睡長夢而難悟 於是同體智力堪造此論 贊述如來深經奧義 欲使爲學者暫開一軸 徧探三藏之旨 爲道者永息萬境 遂還一心之原”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 기신론은 “지혜스럽기도 하고 어질기

도 하며,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며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인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 역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양나라의 진제와 당나라의 실차난타의 한역본 2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신론의 본문인 정종분은 다시 인연분因緣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の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대 사신四信 오행五行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비록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불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불교의 이론과 실천 양면이 잘 정리되어 있어 대승불교의 진수를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훌륭한 경전입니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석서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서 가운데 우리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내신 『대승기신론소』가 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명한 주석서로, 깊고 해박한 지식으로 더 이상의 주석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대승불교의 우수함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第一序分

1. 歸敬偈

歸命盡十方의 最勝業徧知시며 色無礙自在하신 救世大悲者와 及彼身體相의 法性眞如海와 無

量功德藏의 如實修行等하사옵노니 爲欲令衆生으로 除疑捨邪執하고 起大乘正信하야 佛種不斷故나이다.

온 시방의 最勝業으로 徧知하시며 色이 무애하고 자재하신 救世의 대자비와 및 저 身體相의 法性眞如의 바다와 무량한 功德藏의 여실히 수행하는 등에게 歸命하옵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除하며 邪執을 버리고 대승의 正信을 起하여 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해설 : 윗글은 아주 유명한 귀경게입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게송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보에 귀의하고, 다른 하나는 기신론을 지은 뜻을 서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귀경게는 부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 만든 게송으로 다른 발원문을 쓸 때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귀명歸命이란 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바친다는 것입니다. 귀歸는 돌아간단,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고, 명命이란 이 몸의 주인인 목숨을 가리킨 말입니다.

귀명아래 문장을 보면, 온 시방 세계에서 가장 수승한 업을 가지시고 지체智體가 두루하시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심덕心德을 찬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색色이 무애자재하다는 것은 색덕色德을 찬탄한 것으로, 여래의 색신이 만행萬行과 불가사의한 훈습으로 이루어져서 상相과 호好의 한계가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세대비자救世大悲者는 자타를 떠난 무연의 대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가지시는 덕입니다.

급피신체상及彼身體相의 법성진여해法性眞如海는 범보를 가리키

는 것으로, 급피신체상은 부처님이 보신불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성진여해의 법성은 곧 열반을 이룬 것으로 열반 자체가 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며, 진여는 일체법이 모두 참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法이란 글자를 풀어보면 물이 흘러가는 형상을 표현한 글자인데, 물이란 만물을 살아가게 해주고 이로움을 주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나 그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모양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인데 그의 성품이 곧 진여이신 것입니다. 해海는 바다로 팔만대장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매우 깊고, 광대하고, 온갖 보배를 품고 있으며, 온갖 형상을 비추어 나타내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잘못을 영원히 끊어주고 만물을 포용하고 갖추지 않은 덕이 없고 나타내지 않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법성진여해라고 한 것입니다.

무량공덕장無量功德藏의 여실수행등如實修行等은 승보를 찬탄한 것입니다. 무량한 공덕이란 보살이 한 가지 행을 닦음에도 만 가지 덕이 모여 지니고 있음이요, 여실수행등은 보리원을 발한 수행자의 실다운 행덕行德을 찬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수승한 업으로 모든 것을 두루 아시며 무애자재하신 모습으로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비를 베푸시고(불보) 보신불이 되시어 일체법이 모두 참되어 진여해이시며(법보), 무량한 공덕을 쌓고 실답게 수행하시는(승보) 부처님께 신명을 걸고 서원하옵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섰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다례제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5월 30일(음, 4월 24일) 오후 7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추모다례제 및 『화엄경』 봉정식이 있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금강선원 선원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의 스승이자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의 위대한 스승이신 한국 불교의 대석학 탄허대종사의 열반 33주기 추모다례제는 400여명의 사부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삼귀의

례, 반야심경 봉독, 탄허대종사 행장소개(삼지스님)로 시작하여 성우스님을 비롯한 내빈들(홍사덕 전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모사, 가가합창단의 추모가에 이어 『화엄경』 봉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을 비롯한 큰스님들의 헌화와 헌다로 시작된 『화엄경 소론 찬요』 봉정식은 박원순 서울시장,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의 내빈들도 함께 봉정한 후 혜

거 큰스님의 추모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만일수행결사 1600일 경과보고(명원), 종사영반(혜거스님)이 진행되었고, 2부 '소리의 음원을 찾아서' 추모공연은 법해 신도회장과 법련화 사무장의 인사말씀에 이어진 가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혜거 큰스님의 '소리의 음원'에 대한 설명과 채수정 국악교실의 소리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의 소리 시연과 전통 소리에 대한 설명은 우

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채수정 국악교실 단원들의 기쁜소리와 슬픈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은 참석한 사부대중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엄경』 봉정식도 함께 한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다례제는 많은 스님들과 내빈, 대중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탄허대종사를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모다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 앞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혜거 큰스님



소리의 음원에 대해 설명하시는 혜거 큰스님



혜거 큰스님의 헌다



2부 추모공연 중에서



추모문을 낭독하시는 혜거 큰스님



2부 추모공연 중에서



혜거 큰스님의 종사영반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의 공연

추 모 문

대종사 법호시여
불법의 깊은 뜻 담겨있네
상하 사방의 허공, 삼키시니
도는 무생(無生)의 하늘을 관통하고
사생(四生)을 성취시켜 머물 곳 마련해주시니
덕화는 대천세계 입혀주셨네

한암스님은 경허스님의 상수제자요
대종사는 한암스님의 적전이시니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종지를 깨달으셨고
학문은 걸림 없는 큰 지혜를 통하셨다.

좌선의 여가에 경전을 번역하심이어
내전은 모든 집집마다 밝은 창가, 청정한 책상 위에 놓여있고
역경 이후 화엄특강으로
다시 모든 제천(諸天)의 사부(四部)대중을 깨우쳐주셨다.

아, 슬프다.
종사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30여 년
세상은 변하고 큰스님 아니 계셔
세간과 출세간 모든 이들이 쉬운 것만을 찾으니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이치런가.

오늘날, 인재양성으로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신
대종사의 서원 받들어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화엄경을 다시 번역하고
미려한 덕이지만 다시 80화엄경의 강좌를 개설하니
대종사의 영전에
부처님의 은혜를 더럽혔다는
수많은 비난, 모면하기 어려우나
하나같이 항하사처럼 그지없는
청정한 신심의 정성 모아
하늘에 사무치는 맑은 지혜의 향, 세 번 거듭 올리나이다.

오대산 월정사에 높이 솟은 대종사의 맑은 달,
밝고 또 밝아 수많은 눈 먼 이들 눈 띄워주시고
한암(漢巖)의 만고(萬古) 법천(法泉) 머금었다 토해내어
삼도중생 모진 고통 말끔히 씻어주시니

원하옵건대 오늘 이후로
청정한 연꽃은 이곳에서 다시 피어나
미묘한 향기 멀리 우주 밖까지 퍼지고
화엄정토는 이 자리에서 꽃 피어서
그 법음 길이 삼세 간에 울려 퍼지기를 발원하나이다.

불기2560년 5월30일
병납(病納) 혜거(慧炬) 합장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의 출범을 바라보며

2016년 6월 4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금강선원 명상지도자과정 4기가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3기 입학식 날 긴장과 어색함으로 주눅거리던 3기 존들을 위해, 2기 선배님들께서는 환한 웃음과 푸짐한 간식으로 반기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동과 따뜻함이란. 그 전통을 이어받고자 올 해는 의연하게 명상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우리 3기가 신입생들을 위해 간식준비를 하면서 작년 우리들의 명상수업 시간을 돌아봅니다.

입학 첫날, 교육과정 동안 채워야 할 수행 400시간, 읽어야 할 6권의 책, 외워야 할 좌선의, 심우도, 신심명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명상지도자로 키우고 싶으신 욕심 많으신 헤거스님과 광명장 선생님 덕분에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내가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고개 가우뚱거리게 되며 한숨 쉬고 또 쉬었던 시간들.

적응하기 바쁜 초급과정이 지나고 정신없이 바쁜 중급과정 무렵 가족들 모두 잠든 깊은 밤 거실에서 집중표 앞에 놓고 몇 초라도 집중해보려 안타깝게 애쓰던 그 시간이 언제부터가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는 집중표의 변화에 신기해하며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좌선의의를 외울 때 '한 줄이라도 외울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새 완벽하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틈틈이 한군데를 5초 정도 집중 응시하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어느새 그 이미지가 보색으로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보며 재미있어 하고, 그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기관에서 명상을

배웠다면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나 있었을까?'

수업 첫날부터 집중과 멀리 있는 내가 힘들어 좀 쉽게 다가가는 길은 없을까?' '쉽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없을까?' 로 머리 굴리기만 했는데 1년 지난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명상의 길은 스스로 체험하며 닦아가는 길이라는 걸. 헤거스님과 광명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금의 의심도 없이 열심히 따라가다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스님께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인격을 요구하셨습니다. 타기관의 명상가들보다 진정 명상지도자다운 훌륭한 인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하는 거라고.

그렇게 명상 1년차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점검해봅니다. 광명장 선생님의 혹독한 지도 덕분에 매일 밤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훌륭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한 집중은 아니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헤거스님과 광명장 선생님의 제자답게 지금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10분을 명상수업으로 시작하고 느낌을 나눕니다. 심신의 건강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명상하는 거라고 하면서. 집단 상담에서는 호흡으로, 심상으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지도자로서의 수련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 방학입니다. 3기 교육 때 시간에 쫓겨 급급하게 읽어야 했던 6권의 귀한 책들을 다시 읽고자 스터디 계획도 세웠습니다. 4기 금강명상지도자 연수생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글 / 이선희(제3기 금강명상지도자)



미래안, 힘 내

오륙 년 전 겨울에 미래안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두 시간 동안 이주 여성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미래안은 그 학생들 중 하나였지요. 그 당시 스물한 살의 나이로 한국으로 갓 시집 온 베트남 아가씨였습니다. 작은 키에 다부진 몸을 가진 미래안은 잘 웃었고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예의가 바르고 지혜로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통통한 눈으로 의외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 집에서 절에 오르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했는데도 매번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함께 공부한 학생들 예닐곱 명 중 미래안은 단연 최고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우리는 다 같이 절 마당 그늘에 앉아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미래안을 포함한 몇몇과는 자연스럽게 속내를 터놓는 사이로 발전했지요.

미래안은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픈 언니 대신 맏이 노릇을 했고 어려운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모의 소개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작은 도시 외곽에서 농사짓는 남편과 함께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썩 좋을 리 없겠지만 그녀 입에서 불평을 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힘에 부치는 집안일도, 남편 농사를 돕는 일도, 치매 걸린 시아버지 챙기는 일, 그리고 한국의 시골 문화를 익혀 가는 일 모두 기꺼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더군요. 대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미래안이 아기를 가졌다고

말하더군요. 건강한 아이를 낳아 잘 키워보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 오자 미래안은 더 이상 공부하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읽을 책과 자료를 챙겨주었더니 아이를 낳으면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말이지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미래안은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와 우리의 바람처럼 아주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내가 아기를 만나러 갔을 때 미래안은 조금 지쳐보였지만 슬픈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조금 있으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는 듯 미래안은 침착하고 강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큰 탈 없이 잘 자라 어느새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래안은 한국어능력 4급 시험에 합격하였고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까지 갖추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베트남어 보조강사를 하며 틈틈이 통역 봉사도 합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에 집중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아기를 키우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일만으로도 힘에 부쳤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 이름이 적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던 미래안은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겪어나갈 한국 생활을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한국의 아줌마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미래안, 힘 내!

글 / 전현서(국제포교사)

내 몸이 반하는 병원

한성한방병원

02-543-7533 | www.hansungmk.com



헤거 큰스님과 함께 떠난 중국 성지순례

법회시간이면 항상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씀하시던 헤거 큰스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시어 금강선원 신도님들께 중국의 성지와 자연 비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중국 성지순례는 7일간 정주, 낙양, 태항산, 면산을 거쳐 북경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중국여행을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이라 주저 없이 동참하였습니다.

정주 신정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중국 오악 중의 하나인 숭산 소림사로 향했습니다. 소림사는 달마대사의 9년 면벽 수행과 중국선종을 창시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달마권법이 널리 유행하면서 중국 무술계의 산교육장이 되어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소림무술을 수련하고 있으며, 당도한 그날 마침 시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인 낙양은 중원의 핵심지역으로 황하의 중하류지역에 해당되는데, 낙양시 남쪽 이하(伊河) 서안에 위치한 용문석굴은 총길이는 1000여m이며 당대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에 걸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총 1,352개의 동굴에는 현존불 2100개, 불탑 42개, 조각상 10만여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높이 17m이고 가장 작은 것은 2cm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웅장하게 조성되어 그 규모와 장대함에 탄성을 금할 수 없었

습니다. 대표하는 봉선사동(奉先寺洞)은 당 고종과 측천무후가 공을 들여 완성한 석굴로 중앙에는 17m의 노사나좌불상이 있고 좌우에 가섭과 아난존자 및 여러 보살과 금강역사상들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천계산 풍경구를 감상하고 만선산의 절경 속에 위치한 광량촌의 주민 13명이 5년간 절벽에 건설했다는 1,250m의 동굴도로를 달리면서 중국의 대륙적 기질과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태항산 대협곡은 맑은 물이 흘러 폭포를 형성하고 연못을 이루어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비까지 내려 운무에 싸여있는 경치는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버스로 5시간을 달려 중국의 고성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평요 고성에 도착하여 성내에서 1박을 하고 옛 거리를 둘러보며 쇼핑도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비단장수 왕서방의 왕가대원을 찾았습니다. 청나라 4대 명문가문의 하나인 정승 왕씨 형제가 지었으며, 면적이 약 15만평에 1,118칸의 방과 113개의 정원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서성 출신 진상 왕서방이 부자가 된 것은 젊을 때 한 가난한 할머니를 살려준 공덕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장소를 옮겨 두부장사와

비단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침 그때 청나라 건륭황제가 전쟁에 패하여 곤경에 빠졌을 때 군량미를 대주고 도움을 준 댓가로 무위산을 받아 차밭을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씨 일가는 단순히 부자로만 산 것이 아니라 부리는 식솔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였으며, 왕희지와 왕유와 같은 큰 인물이 나오기를 서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날은 해발 2000m에 세워진 공중도시 면산으로 이동하여, 현존하는 도교사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라궁, 정과사, 운봉사를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돌산 속을 뚫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를 수 있도록 한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중국인들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끈기와 지혜, 대륙적 기질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을 품은 대륙도 크고 깊어 그 넉넉함과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좋은 체험의 기회를 주신 헤거 큰스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 / 명원(만일수행결사회 회장)



소림사



면산 절벽에 모신 불상



한자, 한문지도사 1급 합격의 소회



평소 한자로 된 책이나 신문을 늘 접해왔던 터라 한자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

부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자 자격시험을 치러 볼 생각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 기회는 우연히 찾아 왔다.

직장생활 40년을 마감하고 평소 아내가 다니던 서울 강남의 금강선원 법회에 참석하면서 헤거 큰스님의 불교 경전강의를 듣게 되었다. 처음 접하는 한문 원전으로 진행되는 경전강의(금강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도덕경, 육조법보단경,

한비자해노, 원각경 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한문반에서 박완식 교수님의 노자, 장자 강의를 2014년 1월부터 들으면서 힘들었지만 한자, 한문에 대해 심취하게 되었고 한자 자격시험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합격한 보살로부터 한자, 한문지도사 1급 문제집을 얻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겹 없이 한자, 한문지도사 1급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큰 점수차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오기가 생겨 시간 날 때마다 한자를 쓰고 익히고 문장을 외우며 책을 통째로 외우다시피하고, 실패를 통해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부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터라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무척 커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고 가족들도 이쯤에서 도전을 멈추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여태까지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한번만 더’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주교재 외에도 월간 『한글+한자문화』의 최근 자격시험 연습문제집을 입수하여 속담, 시 등 부분을 보충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3번째 시험도 낙방하고, 결국 2016년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다.

시간에 쫓기다 평소 잘 아는 한자도 헛갈려 전혀 엉뚱한 한자를 적어놓고 답안지에 옮기지도 못하는 등 매번 아쉬움이 남곤 하였다. 네 번의 시험에 대비하여

한자공부를 하면서 옛 성현들의 지혜와 멋이 담긴 한시와 문장을 외웠을 뿐 아니라 공부했던 사자성언집을 만들고,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시험 총서』 하단에 있는 한자를 별도로 기록집을 만들어 열심히 외우고 쓰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피곤하면 아내에게 짜증을 내었는데 미안함과 더불어 참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한문고전을 통해 좋은 문장을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금강선원 헤거 큰스님께서 평소 “공부하다 죽는 것이 제일 복된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분들이 한자급수(8급~사범급) 공인시험에 도전하여 불교 경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글 / 남종규(각원)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능엄경 요품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 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 14시 3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제4기 금강명상지도과정 6월4일(토)~12월10일(토) 오후 1시

문화특강 안내

한문전문반(근사록)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6/15(수) 불교상담개발원 강의 14:00~17:00
18(토) 불교상담개발원 강의 14:00~17:00

선원 일정 (7. 1 ~ 7. 31)

7/1 (금) 21일기도입재 9:20
금요법회(능엄경요품) 10:30
3 (일) 일요법회(한비자특강) 10:30
한문반특강(근사록) 13:30
4 (월) 초하루기도 9:20
6 (수) 수요법회(육조단경) 10:30
8 (금) 능엄경요품 10:30
10(일) 일요법회(한비자특강) 10:30

한문반특강(근사록) 13:30
13(수) 수요법회(육조단경) 10:30
은도에 두츠 초대전
(탄허기념박물관 7/13~7/31)
15(금) 금요법회(능엄경요품) 10:30
17(일) 제현절
일요법회(한비자특강) 10:30
한문반특강(근사록) 13:30
18(월) 보름기도 9:20
20(수) 수요법회(육조단경) 10:30
21(목) 21일기도회향 9:20
지장재일
22(금) 금요법회(능엄경요품) 10:30
23(토)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00~22:00)
24(일) 일요법회(한비자특강) 10:30
한문반특강(근사록) 13:30
27(수) 수요법회(육조단경) 10:30
29(금) 금요법회(능엄경요품) 10:30
30(토) 제4기금강명상 지도자과정1급개강(8주과정) 13:00
31(일) 일요법회(한비자특강) 10:30
한문반특강(근사록) 13:30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아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공게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New 대승기신론.....40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아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 15장
New 대승기신론.....40장
New 도덕경.....47장
New 맹자 진심장(헤거스님).....26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헤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 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무주상 천화당한의원 김진열 김소민 김종영 무주상 개포2선등
보 시 물 | 동명한의원 장기팔 청심 박란병영가
대 중 공 양 | 이세영 양옥희
열반재 보시금 | 길훈은 김철관 대일행 의락성 박구준(삼둥이) 성도조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 엄 경 설 판 동 참

1-1481-1490 진현석
1-1497-1506 권현규
강정희
권 진
권수현
1-1514-1523 전영대
전영화
전영수

구 좌 동 참

1 - 1 4 7 9 당 현 호
1 - 1 4 9 1 정 승 우
1 - 1 4 9 2 정 명 진
1 - 1 4 9 3 김 세 훈
1 - 1 4 9 4 김 준 현
1 - 1 4 9 6 구 경 옥
1 - 1 4 9 5 민 정 원
1 - 1 4 4 6 문 중 구
1 - 1 4 4 5 김 지 은
1 - 1 5 1 1 김 병 원
1 - 1 5 1 2 엄 기 훈
1 - 1 5 1 3 최 재 영

1 - 1 5 2 4
1 - 1 5 2 5
1 - 1 5 2 6
1 - 1 5 2 7
1 - 1 5 5 6
1 - 1 5 5 7
1 - 1 5 5 8
1 - 1 4 8 0

화 엄 경 영 가 구 좌 동 참

1 - 1 5 3 0 이정순영가
1 - 1 5 3 1 박덕하영가
1 - 1 5 3 2 민방식영가

김 영 학
엄 위 경
김 나 정
김 세 형
이 희 제
손 석 주
조 민 석
연등작업자일동

1 - 1 5 3 3 이내찬영가
1 - 1 5 3 4 심정숙영가
1 - 1 5 3 5 이내윤영가
1 - 1 5 3 6 이봉구영가
1 - 1 5 3 7 이현숙영가
1 - 1 5 3 8 이남구영가
1 - 1 5 3 9 심상징영가
1 - 1 5 4 0 이육영영가
1 - 1 5 4 1 장세민영가
1 - 1 5 4 2 심동섭영가
1 - 1 5 4 3 송만용영가
1 - 1 5 4 4 심무희영가
1 - 1 5 4 5 심경완영가

1 - 1 5 4 6 이내현영가
1 - 1 5 4 7 유묘순영가
1 - 1 5 4 8 이내훈영가
1 - 1 5 4 9 정경자영가
1 - 1 5 5 0 이육자영가
1 - 1 5 5 1 박동찬영가
1 - 1 5 5 2 이성무영가
1 - 1 5 5 3 여영자영가
1 - 1 5 5 4 손이만영가
1 - 1 5 5 5 석경인영가
1 - 1 5 5 9 김완선영가

금강경 강송대회 여.섯.번.째

마음을 비우는 보고

일시 : 2016.11.12(토)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1. 응시부문 : 개인전, 단체전
2. 원서접수 : 2016년 8월 1일 ~ 10월 30일 (선착순 접수)
3. 접수방법 :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geumgang-sw@hanmail.net)
4. 시 상 : 2016년 11월 19일 (토) / 탄허기념 박물관
5. 시상내역 :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 우수상 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단체상 / 100만원(총 3팀)
각 부분 및 수행수기, 금강경사경 특별상 수여
6. 문 의 : 금강선원 Tel. (02) 445-8484 www.geumgang.org

*제세공과금(27%)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동일 수상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최 : 오대산절정사, BTN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BBS불교방송, 강남구청